



무신론자들의 망상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 지음 | 한성수 옮김 | 한국기독교연구원

한국교회는 불과 수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신앙을 매우 치절한 순교적 의미로 받아들였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등지고 때로는 핍박을 감수하며 천국을 소망으로 두겠다는 고백이 믿음의 골자였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급속한 근대화를 겪고 다윈주의의 폭풍 아래 흔들리더니, 이제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목숨을 걸 것이냐는 단선적인 도전 이상을 요구받고 있다.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세속적인 가치와 구조 속에서 정직한 답변을 줄 수 있는가? 과거 선배들이 가졌던 결사각오라는 순교의 무게 그대로 이제 기독교 신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교회가 맡을 딛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는 『무신론자들의 망상』(이하 『망상』)에서 두 가지 초점으로 기독교의 역사적 정당성을 호소한다. 먼저 최근 학문과 문화를 통해 가해지는 기독교를 향한 맹공이 객관적 근거 없는 소위 ‘진영 논리’에 따른 공격을 위한 공격일 뿐임을 밝힌다. 그리고 기독교야말로 다양한 공적인 영역에서 진실된 ‘혁명’을 통해 기여해 왔음을 주장한다. 본서는 17장으로 구성되었고,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1장~9장을 통해 무신론자들의 왜곡된

논리를 비판하고, 두 번째 10장~15장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기여를 소개하며, 세 번째 16장~17장은 기독교가 밀려나고 벌어진 참혹한 현장에 대한 고발과 교회의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저자는 현대 신홍 무신론자들의 공격을 자신의 학문적 예리함을 무기로 역사적-가끔 고고학적-객관성에 호소하여 대응한다. 근대의 신조는 이성의 자율성이다. 저자는 이것을 “개인적 의지에 대한 불가침의 자유”, 즉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부른다(p.49). 이것은 이성으로 자연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일종의 종교에 가까운 신념이다. 무분별한 비판자들은 기독교를 다양한 영역에서 역사적 퇴보의 주된 원인으로 정죄한다. 『망상』에서 저자 하트 박사는 미학, 철학, 과학, 윤리, 전쟁, 이성의 영역에서 기독교가 받아온 오해를 낱낱이 소개한다. 교회가 철학의 고전들을 사라지게 하고,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며, 불의와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고, 전쟁의 광풍을 일으켰으며, 이성을 파괴해 왔다고 서슴없이 맹공을 퍼부었다. 일부 무신론자들은 심지어 종교적 편향성을 학문에 반영시켜 기독교의 역사적 정당성을 훼손한다. 또한 몇몇 학자들은 역사 연구의 가장 기본인 ‘일차자료(primary sources)’를 활

용한 객관성 확보 없이 “공허한 전설”, 즉 시장에 떠도는 통념으로 기독교에 공격을 가해 왔다. 저자는 이 점에 대하여 이렇게 주장한다. “분명히 그는[조나단 커쉬 Jonathan Kirsch] 그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를 매우 좋은 믿음으로 반복하고 있어서 그것을 사실과 구별하지 못한다.”(p.74) 저자는 그 유명한 갈릴레오의 재판조차도 역사 연구의 렌즈로 정직하게 조망되지 못한 채 그저 “공허한 전설”을 사실처럼 받아들여 교회에 가혹한 정죄를 가하고 있음을 한 예로 제시한다(pp.117~24).

『망상』의 두 번째 부분에서 하트 박사는 기독교의 전세계적 그리고 인류에적 기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 통념적으로 기독교는 교리로는 비논리적이고, 행실로는 불관용적이라고 오해받아 왔다. 게다가 몇몇 학자들은 기독교가 이룬 광범위한 부흥이 “예기치 않은 사회정치적 우발사건” 때문이라며 복음의 호소력을 애써 격하한다(p.252). 그중 램지 맥물렌(Ramsey MacMullen)은 하트 박사가 주요인물로 언급하는 무신론자다. 맥물렌은 성경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바꾼 것이 아니며, 교회도 인류 진보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고 힐난하였다. 이에 하트 박사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맥물렌의 논리 전개방식을 지적한다. 그는 정확하지 않은 2차 자료를 대거 인용하였고, 게다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고전어 번역에 의도적인 편집이 있었음을 지적한다(p.253~54).

또한 교회가 “우연히 발생한 힘들의 결과”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세계사 속 쌓아 온 기여와 업적을 소개한다. 교회는 노예해방, 남녀평등, 정령숭배 배척 등 인류에에 헌신하였고, 나아가 국가를 건강하게 진보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이는 기독교의 철학이 인간성을 고양시키며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트 박사는 서구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이 쇠퇴한 후 벌어진 참상을 세 번째 부분에서 소개한다. 과학적 실용주의가 세상을 진보시킨 듯 보이나 결과

적으로 20세기는 “허무주의”가 지배했다고 주장한다(p.382). 기독교 철학이 사라진 곳에 “인간 본성의 고결함”이 실종되었고, 사회적 “우생학 운동”만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한탄한다(p.385).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이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우주적 진리”에 뿌리를 내려 광야 속에서도 진정한 “혁명의 사명”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며 책을 마친다(p.400).

『망상』은 풍성한 일차 자료 인용과 역사 연구를 기반으로 무신론자들의 부실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본서는 기독교변증학의 성격을 띠지만 철학적 접근이 아닌 역사적 논증의 방식을 택했다. 다만 본서는 저자 자신이 밝히듯 무신론자들의 회심을 의도하지 않는다. 다만 학문의 정직성이 기독교의 정당한 이해에 전혀 손해될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저자는 서론에서 본서를 학문적 도구들을 최소화하여 기술한 역사적 에세이로 규정한다.(p.7~16) 하지만 적어도 일반 독자에게 저자의 의도는 빗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서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전문 학술 정보가 담겨 있으며, 철학과 역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는 논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각 정보들의 이해의 종합으로서가 아니라 논리의 흐름을 따라 대한다면, 본서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을 줄 것이다. 저자가 『망상』 곳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자부심을 거침없이 드러내듯 말이다.



글 | 우상현

삼일교회에서 목사로 충남대학교 수학과(B.S.),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London Theological Seminary(설교자 과정),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에서 수학하였다.